



한화가 기증한 솔라보트는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막는 마지막 보루, 메콩강 하류 베트남 빈롱 지역에서 오늘도 수상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한화가 만든 솔라보트는 단 두 가지 동력만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구 산소공급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간 6,500만톤이나 되는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며, 46억년간 생명의 터전이 되어온 바다.

하지만, 해마다 800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 생태계파괴, 기후변화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아이러니 또한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1g의 탄소배출도 없이 태양광에너지만으로 움직이며 연간 220톤의 수상쓰레기를 자동수거하는 한화 솔라보트, 지구에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지구를 돕는 방식에 대해 한화가 긴 고민 끝에 내어놓은 작은 시작입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46억년 간 지켜져 온 우리의 지구와 바다가 46억년 뒤 인류의 소중한 터전으로 계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